

지속 가능 대안투자 방향 모색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대체투자 트렌드 · 향후 방향

아태지역 연기금 대체투자 동향 등 소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7일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대안적 투자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융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대학생 및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 12인이 발표와 토론을 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역할 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진행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대체투자 전망과 동향에 대한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대안투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망'을 주제로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를 대표하는 헤지펀드사인 엘리턴 매니저먼트 그룹의 그레고리 발리 공동 CEO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대체투자 트렌드 및 향후 방향 등의 내용을 다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태지역 연기금의 대체투자 최근 동향'을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성훈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서 엘리턴 매니저먼트 그룹의 알렉산더 워갈터 R&D 부문 부사장과 경희대학교 김강호 교수가 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투자 운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역할'을 주제로 세계적 책임투자 권위자인 서스테널리티(Sustainalytics)의 마이클 잔츠 CEO,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 아태지역 책임투자&지배구조 담당 박유경 이사가 지속가능한 책임투자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을 논의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올바른 대안투자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 8인이 해외 주요 연기금 및 기관투자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컨퍼런스"라며 "국내외 연기금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미래전망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만성지구 첨단산업지원용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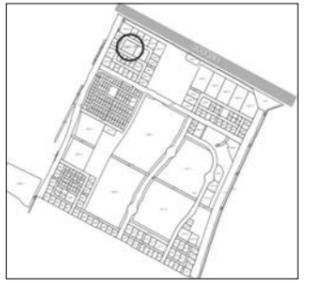
전개공, 3498.3㎡ 상당 1필지

전주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전주 만성지구내, 첨단산업지원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장기연체로 인해 해약된 토지로써 공급금액은 첨단산업지원용지(1필지/3498.3㎡) 41억 62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첨단산업지원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최고층수 5층이 적용된다.

개발공사는 18일(최초), 20일(유찰시 재입찰) 분양신청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접수받아 19일(최초), 21일(유찰시 재입찰)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 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2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에서 유찰될 경우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익계약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이번 토지공급분과 별도로 전북 혁신도시 내 종교용지, 의료시설용지 및 클러스터용지 일부를 수익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 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3-280-7425(보상분양파트))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7일 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대안적 투자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민연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성주 이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개공, 김장 나눔 등 기부 릴레이 '눈길'

마을 제조작업 봉사

묘지 주변 환경정화도

전주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동절기를 앞두고 우리고장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봉사활동·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공사는 지난 10월 15일 1시간 자매결연 마을인 남원 외간마을을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도와 마을 제조작업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10월 21일에는 임실 호국원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묘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11월 7일에는 공사 사육 앞 광

장에서 임직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성껏 맛깔스럽게 담긴 김치 3,700kg를 임대주택 저소득층과 전주 지역 아동센터 등 희망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370세대에 전달했다.

직원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공사 김천환 사장은 "바쁘지만 이웃의 마음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이용객 급증

도내 기업인들 꾸준한 호응 얻어... 지난해 대비 이용객 3배 이상 증가 지난해 말 3000명대

전북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용산역 전북비즈니스라운지가 도내 기업인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으며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전라권 광역시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용산역 광주·전남·전북비즈니스라운지가 전북도민을 포함하여 기업인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연말까지 900여명에 그쳤던 이용객수가 10월말 기준 3,058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전북비즈니스라운지의 인기 기 급증한 이유는 도민들의 KTX 이용률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탁

월한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주는 편리함이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비즈니스라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3개의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지역 상공인이라면 간단한 예약과정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출장이 많은 기업인들이 열차 이용시 대기시간에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여러모로 각광받고 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라운지는 방문객들이 이용 가능한 간단한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커피를 포함한 음료와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 등 편의시설이 두루 마련되어 있다. 라운지 이용은 지역의 상공인

외에도 도내 유관기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도내 기업인들이 수도권을 오가며 경영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들을 만족시키고, 수도권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 또는 전화(02-796-0007)로 문의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LX, 전주 본사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남서울대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LX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LX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의 LX견학콘텐츠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 등의 전문 직업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다.

이날 체험행사는 LX 소개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과정 안내와 LX홍보관 관람, 국토인터넷방송국(LIBS)전하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기술 소개, 드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창학 사장은 "젊은이들의 꿈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LX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들은 44개 학교, 총 1300여명에 이른다.

/김윤상 기자



전주개발공사는 공사 사육 앞 광장에서 임직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고 7일 밝혔다.

병원-기업 지적재산권 개발 장려 · 기술교류

전북대병원-전북테크노파크

'특허 · 기술박람회'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병원과 외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개발을 장려하고 의료기기업체들과 밀접한 기술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제1회 전북대학교병원&전북테크노파크 특허 · 기술박람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센터 △HCT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과 특허기술 설명회,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술 · 제품소개 등이 마련됐다.

3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강연은 1부 주제 특강에서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육성방안(강신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울아산병원의 기술사업화 현황과 비전(강동화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특허와 나의 경



제1회 전북대학교병원&전북테크노파크 특허 · 기술박람회'가 7일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험(박종관 전북대병원 교수) 등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이어 2, 3부에서는 교수진과 기업의 특허기술 설명회 및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관련 정책 및 지원 사항이 소개됐다.

또한 행사가 열린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복도에는 홍보 및 안내 부스를 설치해 특허 기술들이 제품

화된 모습을 경험하고, 외부업체들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홍보 부스에서 제품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직접 제품을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제품의 편의성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북전주세무서, 진북동 주민과

함께하는 국화음악회 개최

북전주세무서(서장 박인호)는 7일 저녁 진북동 주민들을 초청해 '2019년 한바탕의 국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5월 덕진구청과의 사이에 있던 담장을 허물어서 통행로를 내고 화단을 조성한 후 심은 국화가 핀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음악회는 북전주세무서 직원은 물론 인근 우성아파트 주민들과 관내 주요 기업인, 세무사회 임원들도 함께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다.

음악회에는 북전주세무서 직원들로 이루어진 6개 팀과 전북대학교 성악 전공자, 회계사 사무실 직원 등 4개 초창 팀이 성악 또는 대중가요를 부르거나 대금, 오카리나, 색소폰 등의 악기를 연주해 주민들에게 즐거운 가을 음악회를 선사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눌린 성분 풍부

체중조절에 '딱'

농진청, '돼지감자'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일 할당을 낮추는 가능성이 있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 변비와 체중 조절, 당뇨병 완화에 도움을 주는 돼지감자를 소개했다.

돼지감자는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 이라 일부 지역에서는 '똥판지'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품종은 없다.

돼지감자는 적합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다년생 작물이다. 보통 흰색과 자색의 덩이줄기(괴경)가 있다. 가뭄이나 병해충 등에 강하며, 배수가 잘 되는 모래가 많은 땅에 잘 적응한다. 4~5월에 파종해 11월부터 수확한다.

겨울철 추위로 잘 견딜 수 있어 땅이 녹는 3월부터 다시 수확할 수 있다.

돼지감자는 주로 말려서 볶은 뒤 차로 마시며, 삶거나 죽으로 먹기도 한다. 볶음 또는 조림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얇게 썰어 튀기거나 말려 먹을 수도 있다. 다만, 수확한 돼지감자를 그대로 두면 쉽게 썩기 때문에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빛이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농진청이 돼지감자의 이눌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지역과 토양, 재배 방법, 덩이줄기 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에 유통 중인 돼지감자에서 최저 5.9g, 최대 45.3g까지 함량 차이를 보였다. 이에 높은 함량을 나타낸 계통을 간직지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품종화 하는 표준화 기술 연구를 통해 영농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이눌린이 풍부한 기능성 작물로 알려진 돼지감자를 대규모 소득작 재배에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부가가치 증진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